

“붕괴 우려되는데... 대책 없이 임시 조치만 반복”

SOCIETY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광주지하철2호선 공사장 인근 주택 균열 사고

광주 북구 중흥동 주택 4곳 피해... 주민 6명 대피 담장 무너지고 벽 갈라져... 지면 흔들림·땅 꺼짐도

“사달이 날 것 같더니...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가요.”

지난 21일 오후 광주 북구 지하철공사 현장 인근 가정집 담이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붕괴사고 위험 속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날 오후, 사고가 난 주택은 무너진 담장의 파편들이 수습된 상태였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의 난간 일부는 부서진 콘크리트가 드러난 채 철조망으로 임시 조치가 취해져 있었고 출입구 처마도 붕괴돼 20cm 높이의 기둥만 남아 있었다.

주택 외벽은 곳곳에 금이 가 있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운 상태였다.

공사 업체 관계자들로 보이는 인부들은 사고가 발생한 주택 주변에 위치한 다른 집들을 돌며 지지대를 세우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숨을 쉬며 보수 공사를 지켜보던 A씨는 “사고가 날 것 같더니 끝내 문제가 생겼다”고 토로했다.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맞은 편에 거주하는 A씨는 오후 9시10분께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다 뭔가 무너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다. A씨가 마주한 모습은 앞집 처마가 내려앉은 상태였



고, 곳곳에 붕괴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정작 사고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A씨가 급하게 문을 두드려 이들을 대피시켰다.

A씨는 “밤에 그렇게 큰 소리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며 “사고가 난 집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 급하게 문을 두드려서 데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땅 흔들림 때문에 제대로 선 적이 없다”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도 임시 조치만 취하고 방치하더니 문제가 터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주택뿐 아니라 지하철 공사장 인근의 상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에 위치한 가게들 벽면은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일부는 그 틈새가 계속 커져 성인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진 상태였다.

또 건물 사이사이가 벌어지거나 땅 꺼짐 현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버스나 대형 공사 차량이 오갈 때면 지면이 흔들리는 상황도 지속됐다.

10여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가게가 곳곳에 금이 가지 않았다”며 “방바닥 장판도 금 때문에 벌어지는가 하면 건물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등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우려 속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평소 대형 공사 차량들이 오가는 소음이 워낙 커 전날 사고도 대형 차량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시공업체와 북구에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주민들은 “매번 말해도 변화된 것이 없다. 민원을 넣으면 와서 사진만 찍고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시멘트로 덧대는 등 임시 조치만 취하고 가버린다”며 “말로만 조치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셈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께 중흥동 소재 주택 4곳의 담장과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주민 6명이 임시 속소로 대피했다. 광주시 안전관리지문단은 현장 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주택과 건물이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에 장기간 영향을 받으면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51 | 날씨 03:04
예보 19:11 | 날씨 13:58



광주	☀️	16~25
목포	☀️	12~19
여수	☁️	15~18
순천	☀️	15~22
구례	☀️	15~25
광주	☀️	12~22
임도	☁️	13~22
진남	☀️	10~15
고흥	☀️	14~21
진도	☀️	12~18

목포	미물(고)	10:02 / 22:28
	셀물(저)	02:50 / 16:11
여수	미물(고)	05:44 / 17:58
	셀물(저)	12:06 / 23:51

폐기물 해양에 무단투기 선택

만년벌 ○...바다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린 선박이 해경에 적발돼.

22일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21일 목포시 남항부두에서 폐철거구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해양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의 500급 부산 A호를 적발했다고.

A호는 선박에서 용접 등 수리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한 약 5kg의 폐기물을 삼으로 해양에 투기한 혐의를 받아.

A호의 불법행위는 항포구(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입구에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부두 따위를 만들어 놓은 곳) 순찰활동 중 이던 해경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적발됐다.

해경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위반으로 A호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목포=주용준기자ju609911@

육설·세탁 심부름... 구의원에 '경고'

북구의회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직원에게 육설과 세탁 심부름을 시켜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김형수 광주 북구의원에 대한 징계로 '공개 경고'가 내려졌다. 이를 두고 북구청 내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김형수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동료 의원의 징계 양정을 정하는 기구로, 정상(위원장)·임종국(부위원장)·김영순·주순일·정달성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갑질 피해 정황이 담긴 녹취와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 끝에 김형수 의원의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일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권고한 공개사과·출석정지 30일과 비교되는 결과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기구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양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갑질 피해 신고자와 김형수 의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했으며, 육설뿐 아니라 수행 비서에 대한 폭언과 세탁 심부름 등 사적 업무 지시를 모두 인정해 공개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30일이란 중징계를 권고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를 또다시 무시하고, 징계 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가 22일 김형수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앞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을 결정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을 찾아 피켓시위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나두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장은 “육설과 함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구태적인 일에 직원들이 개탄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노조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의견을 피력했다. 여전히 제 식구를 감싸는 행태가 나왔다”고 한탄했다.

정상용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들과 논의 끝에 결정했다”며 “의장님이 비인격적인 육설에 대한 징계만을 의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봄비 내리는 캠퍼스 봄비가 내린 22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 광산기업 손해소 승소

5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 위자료 476만~2857만원 주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일본코크스공업 측이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3명에게 상소분에 따라 위자료로 각각 476만1904원, 1454만5454원, 2857만원과 위자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 3명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전남 해남과 화순에서 각각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다.

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적 차출 탓에 형제를 대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등 모진 차별을 받기도 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 중 사고를 당해 1명은 현지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2명은 그 후유증으로 해방 후 귀국해서도 고된 삶을 살았다.

고인들의 자녀 또는 손자인 원고들은 미쓰이광산을 승계한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됐다.

하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만, 원고들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3인 가운데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일본 기업은 제 아버지를 끌고 가 월급은커녕 밥도 제대로 안 줬다. 그렇게 고생시켰으면 돈을 줘야지”라고 한탄했다.

한편, 이 소송은 소송 제기 5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국제 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장기간 공전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재혼 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